

#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비교연구

정민영<sup>1</sup> · 전성숙<sup>2</sup> · 하수정<sup>3</sup>

마산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부산대학교 간호대학<sup>2</sup>, 경주대학교 간호학과<sup>3</sup>

## Comparative Study of Patients and Nurses in the Perception and Performance to the Emergency Room Nurses' Behavior for Protecting Patient Privacy

Joung, Min-Young<sup>1</sup> · Jun, Seong-Sook<sup>2</sup> · Ha, Su-Jung<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Changwon

<sup>2</sup>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Gyeongju University, Gyeo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perception of patient privacy protection act and performance of nurses targeting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room (ER) and nurse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privacy protection measures of ER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105 patients who visited two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61 emergency room nurse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o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d percentage, independent t-test by using SAS 9.1 program. **Results:** Both ER patients and nurses evaluated the degree of ER nurses' patient privacy protection act performance lower than that of perception. Perception of nurses on ER patient privacy protection act was higher than that of patients but nurses themselves evaluated their performance lower than patients. In the area of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 patient consent, perception of nurses was lower than that of patients and nurses themselves evaluated their performance lower than patients.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specific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degree of performance as well as the degree of perception on patient privacy protection act of ER nurses. The curriculum about patients' access right to medical information and patients' right as the medical information subject is required to be opened in universities.

**Key Words:** Privacy, Emergency Nurse, Perception, Behavior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환자는 의료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의

료 수혜자의 입장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왔고, 자신의 개인정보, 진료기록들에 대해서 거의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였다(Malcolm, 2005). 그러나 최근 의료과학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등 의료정보 유출

**주요어:** 사생활, 응급실 간호사, 인식, 실천

**Corresponding author:** Jun, Seong-Sook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626-870, Korea.

Tel: +82-51-510-8359, Fax: +82-51-510-8308, E-mail: jss@pusan.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정민영의 석사학위논문 of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Pusan University.

투고일: 2014년 5월 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6일 /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2일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생활 보호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진영, 2009).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지침 및 법제들을 입법화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인경, 2006).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미국은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을 기반으로 의료정보 사용과 공개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의료정보의 통제권을 보장하여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Freeman, 2004),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규정하여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보건 단체와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진태영, 2003).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료 환경은 의료정보의 외부 노출로 인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진태영, 2003), 특히, 외래나 입원진료 보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배현아, 이석배, 장혜영, 2007). 응급실 내원 환자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공포감을 느끼고, 개성이나 품위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정복례, 2003), 응급조치에 급급한 의료진들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소홀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Woogara, 2005). 또한 응급실 환경은 24시간 개방체제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 외에 다른 의료진과 일반인의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이며, 응급 환자 진료는 다수의 의료진과 관련 부서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므로, 여러 의료진의 정보 공유로 인해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부지불식 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김복자 등, 2006; 배현아 등, 2007; 정선영, 주현옥, 2009).

응급실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외에서의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Nayeri & Aghajani, 2010; Olsen & Sabin, 2003), Mlinek와 Pierce (1997)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53%가 환자 분류 구역과 대기실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조사한 Karro, Dent와 Farish (2005)의 연구에서 환자들은 커튼으로 가려진 침상에서 다른 환자의 의료정보를 엿들을 수 있었으며, 의료진의 환자 관련 대화를 엿들은 경우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급실 환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국외의 활발한 연구에 비

해 국내 연구는 대부분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윤리와 관련된 연구(박인경, 2006; 박정화, 2004; 이인영, 2002; 정영화, 2000), 의료인과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배현아 등, 2007; 정선영과 주현옥, 2009; 최성희, 2008) 등으로 응급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와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의 직접적인 실천 주체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실 내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간호사의 실천 정도를 조사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환자는 간호사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간호사는 스스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응급실 간호활동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내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를 조사하여 응급실 간호활동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응급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 정도와 간호사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응급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 정도 및 응급실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 정도와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 정도 및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 및 응급실 간호사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비교한다.

### 3. 용어정의

#### 1)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

환자의 사적정보를 공개당하지 않게 하고 환자 자신의 사적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간호사들의 행동에 대한 환자의 지각정도를 말한다(이미영, 송영신,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조사도구와 이미영과 송영신(2007)의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도구를 연구자가 응급실 환자와 간호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정도

환자의 사적정보가 공개 당하지 않게 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해 간호사가 실천하는 정도를 말한다(의료정보윤리현장,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조사도구와 이미영과 송영신(2007)의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도구를 연구자가 응급실 환자와 간호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내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과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비교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P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Y시 P대학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여 입원 또는 퇴원결정 후 대기상태인 환자와 응급실 간호사 중에서 설문 응답이 가능한 대상자 중 설문에 동의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d$ )=0.5, 유의수준  $\alpha$  = .05 (양측검정), 검정력(1- $\beta$ )=.95를 투입한 결과 210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

고 이를 근거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42명이었다.

### 3. 연구도구

이미영과 송영신(2007)이 개발한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도구 19문항을 중심으로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의 인식과 실천 측정도구 39문항을 참고하여 응급실 특성에 맞게 환자와 간호사에게 인식 정도와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요청 확인 관련 1문항 추가, 유사한 3문항을 1문항으로 통합, 관계없는 3문항 삭제, 환자정보관리영역 3문항 추가, 신체프라이버시 관련 1문항 추가하여 환자용과 간호사용 모두 동일하게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보완된 도구는 간호학교수 1인, 응급실 수간호사 1인, 응급실 근무경력 5년 이상 간호사 2인에게 타당성 검정을 의뢰하였으며, 용어의 적절성, 이해도 등을 고려하기 위해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19문항 모두 본 연구도구로 사용하는데 타당하다는 검정을 받았다. 19문항 모두 5점 척도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의 인식과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동시에 평가하며, 하부영역으로 신체프라이버시영역, 환자정보관리영역, 의사소통영역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정보관리영역은 환자동의, 정보보호영역으로 나뉘며, 의사소통영역 또한 간호사-환자, 간호사-동료직원, 비공식대화영역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미영과 송영신(200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실천정도에 대한 인식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8이었으며,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연구에서 인식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8, 실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5, 간호사의 실천정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7이었으며,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0, 실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8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방법은 제작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산대학교병

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면제 승인을 얻었다. P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Y시 P대학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수간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응급실 수간호사의 추천을 받은 입원 또는 퇴원결정 후 대기상태인 응급실 환자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문과 동의서를 받아 자발적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급실 환자 설문지 121부와 전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64부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환자 설문지 16부와 간호사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응급실 환자 설문지 105부와 응급실 간호사 설문지 6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환자와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정도와 간호사의 실천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정도와 실천정도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응급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간호사의 실천정도

인식정도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성별( $p=.027$ ), 응급실 재실기간( $p=.015$ )으로 성별은 여자가 인식정도가 더 높았으며, 응급실 재실기간은 3일 이상인 대상자들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재실기간이 6시간 이내인 대상자들의 인식정도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재실기간이 1~2일인 대상자의 인식정도가 가장 낮았다. 간호사의 실천정도에서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환자가 인식하는 간호사 실천정도 비교에서 성별은 여자가, 연령은 40~49세가,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에서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실천정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 응급실 방문횟수는 처음, 응급실 재실기간은 6시간 이내에서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실천정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Table 1).

### 2. 응급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 및 응급실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실천정도

신체프라이버시, 환자정보관리, 의사소통 세 영역을 통합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의 전반적인 점수는 응급실 환자의 인식정도가  $4.10 \pm 0.51$ 점, 간호사의 실천정도는  $3.71 \pm 0.64$ 점으로써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간호사의 실천정도 모두 신체프라이버시가 가장 높게, 의사소통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 인식정도와 간호사의 실천정도는 신체프라이버시영역이  $4.51 \pm 0.58$ 점,  $4.34 \pm 0.77$ 점( $p=.030$ ), 환자정보관리영역이  $4.42 \pm 0.54$ 점,  $3.94 \pm 0.76$ 점( $p<.001$ ), 의사소통영역이  $3.89 \pm 0.58$ 점,  $3.48 \pm 0.74$ 점( $p<.001$ )으로 나타나 세 영역 모두에서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실천정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 3.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실천정도

인식정도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임상경력( $p=.006$ )과 응급실 근무경력( $p=.006$ )으로 두 항목 모두 경력 2년 미만 간호사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간호사의 실천정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없었다.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실천정도 비교에서 성별은 여자, 연령은 35세 이하, 최종학력과 결혼상태, 임상경력, 프라이버시 보호 교육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직급은 일반간호사, 응급실 근무 경력은 4년 미만과 6년 이상, 프라이버시 보호 교육은 '필요하다'에서 인식정도가 간호사 실천정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p<.05$ )(Table 3).

### 4.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 및 실천정도

신체프라이버시, 환자정보관리, 의사소통 세 영역을 통합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의 전반적인 점수는 응급실 간호사의 인식정도가  $4.12 \pm 0.34$ 점, 실천정도가  $3.57 \pm 0.46$ 점으로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실천정도 모두 신체프라이버시가 가장 높게, 의사소통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는 신체프라이버시영역이  $4.45 \pm 0.57$

**Table 1.** The Nurse' Performance and Behavior for Protecting Priv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Room Patient (N=1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ehavior for protecting privacy		t (p)
			Perception	Performance	
Gender	Female	59 (56.2)	4.19±0.50	3.71±0.64	5.77 (< .001)
	Male	46 (43.8)	3.97±0.50	3.71±0.65	2.70 (.010)
	t (p)		2.24 (.027)	0.02 (.988)	
Age (year)	< 20	10 (9.5)	3.91±0.50	3.96±0.77	-0.25 (.810)
	20~29	10 (9.5)	4.24±0.54	3.69±0.78	4.79 (.001)
	30~39	23 (21.9)	4.23±0.49	3.73±0.58	3.22 (.004)
	40~49	26 (24.8)	4.14±0.39	3.57±0.67	4.70 (< .001)
	≥ 50	36 (34.3)	4.00±0.57	3.74±0.58	2.56 (.015)
	F (p)		1.36 (.253)	0.75 (.563)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4 (3.8)	4.22±0.47	4.14±0.53	1.04 (.375)
	Middle school	19 (18.1)	3.93±0.66	3.84±0.64	0.63 (.539)
	High school	48 (45.7)	4.04±0.48	3.70±0.63	3.85 (< .001)
	College	13 (12.4)	4.23±0.55	3.78±0.79	1.84 (.091)
	≥ University	21 (20.0)	4.28±0.35	3.50±0.54	6.72 (< .001)
F (p)		1.68 (.161)	1.31 (.273)		
Marital status	Married	68 (64.8)	4.11±0.50	3.70±0.62	5.05 (< .001)
	Single	27 (25.7)	4.12±0.52	3.79±0.75	2.61 (.015)
	Other	10 (9.5)	3.97±0.56	3.61±0.46	2.00 (.076)
	F (p)		0.36 (.700)	0.32 (.730)	
The number of emergency room visit	First	68 (64.8)	4.06±0.49	3.70±0.63	4.66 (< .001)
	Second	22 (21.0)	4.08±0.43	3.67±0.64	2.69 (.014)
	≥ Third	15 (14.3)	4.29±0.66	3.85±0.68	2.69 (.018)
	F (p)		1.24 (.293)	0.43 (.650)	
Occupancy period of the emergency room	Within 6 hours	33 (31.4)	4.22±0.50	3.73±0.68	4.66 (< .001)
	6~24 hours	34 (32.4)	4.09±0.44	3.65±0.63	3.47 (.002)
	1~2 days	26 (24.8)	3.85±0.50	3.60±0.60	2.18 (.039)
	≥ 3 days	12 (11.4)	4.32±0.57	4.08±0.56	1.21 (.252)
	F (p)		3.64 (.015)	1.79 (.154)	

**Table 2.** The Emergency Room Nurse'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Behavior for Protecting Privacy of Emergency Room Patient (N=61)

Scopes	Perception	Performance	t (p)
	M±SD	M±SD	
Physical privacy	4.45±0.57 <sup>a</sup>	4.16±0.68 <sup>a</sup>	4.09 (< .001)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4.21±0.49 <sup>b</sup>	3.84±0.63 <sup>b</sup>	5.10 (< .001)
Communication	4.01±0.35 <sup>c</sup>	3.33±0.58 <sup>c</sup>	8.50 (< .001)
F (p)	13.30 (< .001)	26.52 (< .001)	
Sum	4.12±0.34	3.57±0.46	9.03 (< .001)

점, 4.16±0.68점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환자정보관리 영역이 4.21±0.49점, 3.84±0.63점( $p < .001$ ), 의사소통영역이 4.01±0.35점, 3.33±0.58점으로 나타나( $p < .001$ ) 모든 영역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인식정도가 스스로 실천하는 정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 5.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 및 응급실 간호사의 실천정도 비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총 인식정도 점수는 환자가 4.10±0.51점, 간호사가 4.12±0.34점으로 간

**Table 3.** The Nurse'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Behavior for Protecting Priv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Room Nurse (N=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ehavior for protecting privacy		t (p)
			Perception	Performance	
Gender	Female	58 (95.1)	4.13±0.34	3.56±0.46	9.05 (< .001)
	Male	3 (4.9)	4.00±0.21	3.79±0.50	
	t (p)		0.62 (.537)	0.83 (.407)	
Age (year)	≤ 25	26 (42.6)	4.14±0.40	3.55±0.43	6.75 (< .001)
	26~30	22 (36.1)	4.04±0.32	3.63±0.47	4.31 (< .001)
	31~35	9 (14.8)	4.24±0.18	3.61±0.55	3.61 (.007)
	≥ 36	4 (6.6)	4.16±0.28	3.30±0.50	2.62 (.079)
	F (p)		0.81 (.495)	0.61 (.611)	
Education	College	31 (50.8)	4.11±0.36	3.59±0.47	5.81 (< .001)
	University	24 (39.3)	4.09±0.33	3.59±0.41	
	≥ Graduate school	6 (9.8)	4.27±0.23	3.43±0.66	
	F (p)		0.68 (.510)	0.30 (.740)	
Marital status	Married	12 (19.7)	4.13±0.28	3.55±0.42	5.53 (< .001)
	Single	49 (80.3)	4.12±0.36	3.58±0.48	
	t (p)		0.14 (.888)	0.19 (.850)	
Position	≥ Charge nurse	5 (8.2)	4.21±0.25	3.57±0.61	2.06 (.108)
	General nurse	56 (91.8)	4.11±0.35	3.57±0.46	
	t (p)		0.63 (.534)	0.01 (.989)	
Clinical experience (year)	< 2	19 (31.2)	4.27±0.35	3.63±0.45	6.39 (< .001)
	≥ 2~< 4	19 (31.2)	3.98±0.32	3.63±0.47	
	≥ 4~< 6	9 (14.8)	3.92±0.36	3.35±0.38	
	≥ 6	14 (23.0)	4.24±0.20	3.56±0.53	
	F (p)		4.63 (.006)	0.85 (.472)	
Work experience of ER (year)	< 2	20 (32.8)	4.26±0.34	3.64±0.44	6.47 (< .001)
	≥ 2~< 4	23 (37.7)	3.95±0.33	3.57±0.47	
	≥ 4~< 6	5 (8.2)	4.01±0.36	3.38±0.35	
	≥ 6	13 (21.3)	4.24±0.21	3.54±0.54	
	F (p)		4.63 (.006)	0.44 (.725)	
Education experience for protecting privacy	Yes	29 (47.5)	4.18±0.34	3.57±0.50	6.44 (< .001)
	No	32 (52.5)	4.06±0.33	3.57±0.44	
	t (p)		1.38 (.173)	0.01 (.994)	
Education need for protecting privacy	Yes	58 (95.1)	4.10±0.34	3.56±0.46	8.60 (< .001)
	No	3 (4.9)	4.44±0.15	3.88±0.37	
	t (p)		1.70 (.095)	1.18 (.244)	

**Table 4.** The Patient'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Behavior for Protecting Privacy of Emergency Room Nurse (N=105)

Scopes	Perception	Performance	t (p)
	M±SD	M±SD	
Physical privacy	4.51±0.58 <sup>a</sup>	4.34±0.77 <sup>a</sup>	2.20 (.030)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4.42±0.54 <sup>b</sup>	3.94±0.76 <sup>b</sup>	6.57 (< .001)
Communication	3.89±0.58 <sup>c</sup>	3.48±0.74 <sup>c</sup>	5.61 (< .001)
F (p)	37.47 (< .001)	33.44 (< .001)	
Sum	4.10±0.51	3.71±0.64	6.04 (< .001)

호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각 영역별 인식 정도 비교에서 환자정보관리영역 전체( $p=.013$ ), 환자정보관리-환자동의영역( $p<.001$ ), 환자정보관리-정보보호영역( $p=.009$ ), 의사소통-비공식 대화영역( $p=.00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신체프라이버시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환자정보관리 전체와 환자정보관리-환자동의영역의 인식정도 점수는 환자가  $4.42\pm 0.54$ 점,  $4.43\pm 0.55$ 점, 간호사가  $4.21\pm 0.49$ 점,  $4.06\pm 0.55$ 점으로 환자의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정보관리-정보보호영역과 의사소통-비공식대화영역의 인식정도 점수는 환자가  $4.38\pm 0.79$ 점,  $4.13\pm 0.77$ 점, 간호사가  $4.66\pm 0.54$ 점,  $4.42\pm 0.53$ 점으로 간호사의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총 실천정도 점수는 환자가  $3.71\pm 0.64$ 점, 간호사가  $3.57\pm 0.46$ 점으로 환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영역별 간호사의 실천정도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 비교에서 환자정보관리-환자동의( $p=.030$ ), 환자정보관리-정보보호영역( $p=.004$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나머지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환자정보관리-환자동의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실천정도 점수는 환자가  $3.91\pm 0.79$ 점, 간호사가  $3.64\pm 0.70$ 점으로 환자의 점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자정보관리-정보보호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실천정도 점수는 환자가  $4.01\pm 0.90$ 점, 간호사가  $4.41\pm 0.76$ 점으로 간호사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응급실 내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응급실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응급실 간호활동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프라이버시 침해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수행하였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응급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간호사의 실천정도에서,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응급실을 처음 방문한 경우와 응급실 재실 6시간 이내 환자의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실천정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Back과 Wikblad (1998)의 연구에서도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결과가 일치하였다. 응급실 재실기간이 3일 이상인 환자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Table 5.** Comparison of Patients and Nurses in the Perception and Performance to the Emergency Room Nurses' Behavior for Protecting Patient Privacy

Classification	Scope	Patient (n=105)	Nurse (n=61)	t (p)
Perception	Physical privacy	4.51±0.58	4.45±0.57	0.65 (.514)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4.42±0.54	4.21±0.49	2.51 (.013)
	Patient consent	4.43±0.55	4.06±0.55	4.21 (<.001)
	Information protection	4.38±0.79	4.66±0.54	2.65 (.009)
	Communication	3.89±0.58	4.01±0.35	1.65 (.100)
	Nurse - patient	3.80±0.62	3.94±0.50	1.49 (.138)
	Nurse - colleague	3.87±0.70	3.91±0.39	0.40 (.689)
	Informal conversation	4.13±0.77	4.42±0.53	2.81 (.006)
	Sum	4.10±0.51	4.12±0.34	0.33 (.741)
Performance	Physical privacy	4.34±0.77	4.16±0.68	1.45 (.149)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3.94±0.76	3.84±0.63	0.86 (.388)
	Patient consent	3.91±0.79	3.64±0.70	2.19 (.030)
	Information protection	4.01±0.90	4.41±0.76	2.91 (.004)
	Communication	3.48±0.74	3.33±0.58	1.43 (.156)
	Nurse - patient	3.35±0.89	3.12±0.72	1.70 (.091)
	Nurse - colleague	3.61±0.76	3.43±0.70	1.54 (.125)
	Informal conversation	3.49±1.11	3.63±0.90	0.84 (.402)
	Sum	3.71±0.64	3.57±0.46	1.65 (.102)

(Karro et al., 2005). 따라서 환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응급실 내원 여자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그리고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정도가 응급실 방문 초기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응급실 방문 초기에 낮은 응급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급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 및 응급실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환자 자신의 인식정도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간호사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이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응급진료 환경에서 간호사가 응급간호에 치중하여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소홀하고 있음을 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arro 등(2005)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환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만족 정도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인식정도는 임상경력과 응급실 근무경력 모두 2년 미만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년 이상인 경우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선영과 주현옥(2009)는 인식정도가 응급실 경력이 많을수록, 실천정도는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높다고 하였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실천도가 높다(김정자, 권은하, 2012)고 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병동 및 응급실 근무 초기 신규간호사 시절에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천정도가 높았다가 점점 응급실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경력의 증가와 함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임상경력의 축적과 지위향상에 따라 역할과 책임감이 증가하여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경력과 응급실 근무경험이 풍부한 경력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들과 경력 4~6년 사이 간호사들의 인식과 실천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정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인식정도는 4.12점, 실천정도는 3.57점으로 인식정도에 비해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선영과 주현옥(2009)의 연구와 같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혼잡하고 개방된 응급실 환경과 다른 환자 및 의료진 등으로 붐비는 좁은 공간, 부족한 간호인력 등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으로 인해 간호사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Olsen, Cutcliffe, & O'Brien, 2008).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 및 응급실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인식정도는 간호사가 환자 보다 높게, 간호사의 실천정도는 환자가 바라보는 간호사의 실천정도가 간호사 스스로 인식하는 실천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환자는 병원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Woogara (2005)는 환자가 프라이버시 보다 의학적 치료를 더 우선시 하는 경향에 따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낮은 프라이버시 보호정도를 이해하며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환자는 신체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간호사의 실천정도도 신체프라이버시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는 환자정보관리-정보보호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실천정도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입장과 실제 응급실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입장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신체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 의료정보 보호 뿐 아니라 환자가 신체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만큼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Karro et al., 2005). 환자정보관리-환자동의영역에 대한 인식 및 실천점수는 모두 간호사가 환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 스스로 의료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인식과 환자를 정보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이나 임상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권 및 의료정보주체로서의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과정 개설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의사소통-비공식대화영역에 있어서 간호사의 높은 인식정도에 비해 환자가 바라보는 간호사의 실천정도는 낮게 나타나 응급실 간호사가 일상생활과 실제 업무 중에 부주의하게 환자정보를 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자가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성희(2005)의 연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호사들이 지식은 많으나 실천 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응급실에서 환자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도와 응급실 간호사의 실천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P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Y시 P대학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입원 또는 퇴원결정 후 대기상태인 환자 중에서 설문에 동의한 환자 105명과 응급실 간호사 64명 중 연구목적에 동의한 간호사 61명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여자 환자, 응급실 재실기간이 3일 이상인 환자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의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실천정도 보다 높았고, 간호사의 인식정도와 실천정도 모두 신체프라이버시영역이 가장 높고, 의사소통영역이 가장 낮았다. 둘째,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임상경력과 응급실 근무경력 모두 2년 미만 간호사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실천정도 보다 높았고, 인식과 실천정도 모두 신체프라이버시영역이 가장 높고, 의사소통영역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전체 인식정도와 실천정도 비교에서 인식정도는 간호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실천정도는 환자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자료수집기간이 1개월이고 연구대상이 응급의료센터 두 곳의 내원 환자 105명과 간호사 61명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자료수집 기관을 늘려 여러 지역의 병원을 연계한 대규모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정도와 함께 실천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의료정보 이용 동의에 대해 간호사의 인식정도가 환자보다 낮게 나타남

에 따라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권 및 의료정보주체로서의 환자의 권리에 대한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김복자, 이은남, 강경희, 김성숙, 김순애, 성영희, 등(2006).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규명을 위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2(1), 81-95.
- 김정자, 권은하(2012).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에 관한 연구-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2), 447-455.
- 박인경(2006).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정화(2004). **전자의무기록의 활용과 의료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배현아, 이석배, 장혜영(2007). 응급 환자 진료에서 설명 의무와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상충될 때의 대처.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10(1), 73-82.
- 서울대병원 외 12개 병원(2004). **의료정보윤리현장(안 0529)**.
- 신종철(2001).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미영, 박영임(2005).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임상간호연구**, 11(1), 7-20.
- 이미영, 송영신(2007).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기본간호학회지**, 14(2), 204-212.
- 이영규(2005).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법학논총**, 25(1), 135-160.
- 이인영(2002). 개정 의료법의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11, 135-158.
- 이진영(2009).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생명윤리정책연구**, 3(2), 173-197.
- 정규원(2002).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보법학**, 6(1), 1-19.
- 정복레(2003). 종합병원 응급실 방문 환자의 특성과 환자가 지각한 불편요인. **경북간호과학지**, 7(2), 83-98.
- 정선영, 주현옥(2009).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 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정도. **간호행정학회지**, 15(3), 403-414.
- 정영화(2000).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천: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진태영(2003). **의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보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성희(2008). **응급실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수원.
- Back, E., & Wikblad, K. (1998). Privacy in hospita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940-945.
- Britten, N., Bartholomew, J., Morris, R., & Zander, L. (1999). Consultants' and patients' views about patient access to their practice records.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84(5), 284-287.
- Davidson, J. (2009). Electronic medical records: Ownership, privacy and security issues. *Canadian Nursing Home*, 20(4),

14-15.

- Freeman, J. (2004). HIPAA Enhancements to improve emergency department security.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43*(5), 657-659.
- Karro, J., Dent, A. W., & Farish, S. (2005). Patient perceptions of privacy infringements in an emergency department. *Emergency Medicine Australasia, 17*(2), 117-123.
- Malcolm, H. A. (2005). Dose privacy matter? Former patients discuss their perceptions of privacy in shared hospital rooms. *Nursing Ethics, 12*(2), 156-166.
- Mlinek, E. J., & Pierce, J. (1997). Confidentiality and privacy breaches in a university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Academic Emergency Medicine, 4*(12), 1142-1146.
- Nayeri, N. D., & Aghajani, M. (2010). Patients' privacy and satisfactio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descriptive analytic study. *Nursing Ethics, 17*(2), 167-177.
- Olsen, J. C., Cutcliffe, B., & O'Brien, B. C. (2008). Emergency department design and patient perceptions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35*(3), 317-320.
- Wilson, M. M. (1997). Patient confidentiality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ustralian Emergency Nursing Journal, 1*(2), 59-61.
- Woogara, J. (2005). Patients' privacy of the person and human rights. *Nursing Ethics, 12*(3), 273-287.